

## 대동맥류의 외과적 치료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흉부외과학 교실  
조원민 · 류영진 · 김옥진 · 최영호 · 김 학재

대동맥류는 그 예후가 좋지 못한 질환이나, 정확한 조기 진단 방법과 외과적 치료의 경험이 점차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고령 환자에 대한 수술적 치료에도 높은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려대학교 부속 구로 병원에서는 1986년 7월부터 1996년 7월까지 대동맥류로 수술을 한 2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 군의 평균 연령은  $53.3 \pm 14.1$ 세이었고, 남녀 비는 17:8로 남자가 많았다. 내원시 환자가 호소한 주 증상으로는 복부 혹은 등측 통증이 11례(44%), 전갑부로의 전이를 동반하거나 혹은 단순한 흉통이 9례(36%), 호흡 곤란이 7례(28%), 박동성 종양의 감지가 5례(20%) 등의 순서였고, 환자의 10례(40%)에서는 고혈압을, 그리고 4례(16%)에서는 당뇨를 동반하고 있었으며, 그 외 담낭 결석과 신 결석, 관상동맥 질환 등의 과거력을 가지고 있었다. 환자들의 증상 발발에서 수술까지 소요된 평균 시간은  $109.8 \pm 220.8$ 일이며, 입원부터 수술까지의 평균 소모 시간은  $6.6 \pm 6.3$ 일이었다. 내원과 동시에 환자는 흉부 X선 검사와 심전도는 물론 환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심 초음파나 복부 초음파, 컴퓨터 촬영, 자기 공명 촬영 혹은 대동맥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비교적 손쉽게 병변의 위치와 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

최종 진단은 상행 대동맥류와 동반된 대동맥 판막 부전 및 대동맥 판류 확장증을 가진 Marfan씨 증후군이 3례(12%)이었고, 대동맥 협착을 동반하거나 혹은 동반하지 않은 하행 흉부 대동맥류 환자가 각각 1례(4%)와 2례(8%)씩이었으며, 신동맥 하부부터 기시한 복부 대동맥류의 경우가 9례(36%)이었다. 해리성 대동맥류는 모두 10례(40%)로 DeBakey 분류에 의한 Type I, II, IIIb가 각각 3(12%), 3(12%), 4(16%)례이었다. 환자들에 있어서 Graft Interposition(Y-Graft 10례(40%), Straight Graft 7례(28%))의 방법이 주된 수술 방법이었고, 액외동맥과 양측 대퇴동맥의 우회술을 시행한 경우가 1례(4%), 상행대동맥과 상완두동맥의 분기부에 생긴 동맥류로 대동맥과 상완두동맥간의 우회술을 시행한 경우가 1례(4%) 있었으며, 3례(12%)에서는 대동맥의 Wrapping을 시행하였다. Bentall씨 수술은 5례(20%)에서 이루어졌다.

수술후 보고된 병리 소견으로는 염증 혹은 감염 소견을 보인 3례(12%)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퇴행성 혹은 동맥 경화의 소견을 나타내었고, 외상에 의한 해리성 대동맥류도 1례(4%)에서 있었다.

수술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은 7례(28%)로 출혈로 인한 사망이 5례(20%), 급성 신부전과 호흡 부전을 보인 1례(4%)씩의 환자가 사망하였다. 기타 합병증으로 창상 감염과 혈변, 폐렴 등이 있었으나 보존적 치료로 완쾌되었는데, 신경학적 합병증은 경험하지 못하였다.

생존한 환자는 수술 후 평균 18.9±일 만에 큰 문제없이 퇴원하였고, 수술 후 30개월 후에 발생한 만성 사망률이 1례(4%)이었다.